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셋째 보따리
 김 경석

제일 출판, 2012.09.

<http://asadal.pusan.ac.kr/~gimgs0/book/hgiyagi3.html>

제 3 부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111
1.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세벌식과 두벌식	113
2. 옛 한글을 지원하는 자판이 지원해야 할 기능	116
3. 요즘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	119
4.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	124
5. 세벌식 옛 한글 자판	129
6.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 (HWP에서 쓰는 자판)	132
7. Microsoft의 워드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 소개	139
8. 옛 한글 자판: 맺는말	140
9. 참고 자료: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및 용어	141

제 3 부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111

1.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세벌식과 두벌식	113
1.1 옛 한글 자판의 특성: 두벌식과 글자마디 경계 글쇠	114
1.2 아래 아 한글과 MS 오피스의 두벌식에서 쓰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	114
1.3 끝소리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	115
1.4 옛 한글 자판: KS X ISO/IEC 10646 해설에서 소개쯤은 해야	115
2. 옛 한글을 지원하는 자판이 지원해야 할 기능	116
2.1 옛 한글에서만 쓰는 글자	116
2.2 한글 자판의 벌식: 세벌식, 두벌식, 네벌식	117
2.3 옛 한글 자판을 만들 때의 원칙 및 가정	119
3. 요즘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	119
3.1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 치기	119
3.2 세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 치기	121
4.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	124
4.1 옛 한글 첫소리 겹글자의 수는 몇 개?	124
4.2 두벌식 옛 한글 자판 만드는 방법 두 가지	125
5. 세벌식 옛 한글 자판	129
5.1 요즘 세벌식 자판에 옛 흘글자 13 자만 더하면 옛 한글 자판이 된다	129
5.2 세벌식과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칠 때의 차이: 원리	130
5.3 세벌식과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칠 때의 차이: 실제 보기	131
6.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 (HWP에서 쓰는 자판)	132
6.1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옛 한글 흘글자를 배열한 과정	132
6.2 아래 아 한글에 나오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 소개	134
6.3 아래 아 한글에서 옛 한글 자판으로 바꾸기	136
7. Microsoft의 워드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 소개	139
8. 옛 한글 자판: 맏는말	140
9. 참고 자료: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및 용어	141
9.1 옛 한글 문서 편집기 (1993 년, 1994 년 개발) 소개	141
9.2 옛글자에 관한 용어	143

제 3 부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제 3 부에서는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에 대하여 살펴보자. 1에서는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으로 세벌식과 두벌식을 살펴본 뒤, 2에서는 옛 한글을 지원하는 자판이 지원해야 할 기능을 살펴보자.

3에서는 요즘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를 살펴본 뒤, 4에서는 두벌식으로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보자.

한편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대해서는 5에서 살펴본 뒤, 실제로 HWP에서 쓰는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6에서 살펴보겠다. 또한 7에서는 Microsoft의 워드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보겠다.

8에서는 옛 한글 자판과 관련하여 맺는말을 보고, 끝으로 9에서는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및 옛글자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다.

1.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 세벌식과 두벌식

1.1에서는 옛 한글 자판의 특성으로 글자마다 경계가 있는데, 두벌식에서는 글자마다 경계 글쇠가 따로 있어야 함을 보겠으며, 1.2에서는 아래 아 한글과 MS 오피스의 두벌식 옛 한글 자판에서는 각각 쓰는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알아보겠다. 1.3에서는 홀로 있는 끝소리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본 뒤, 끝으로 1.4에서는 첫가끝 조합형이 들어있는 KS X ISO/IEC 10646의 해설에서 옛 한글 자판을 소개쯤은 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보겠다.

1.1 옛 한글 자판의 특성: 두벌식과 글자마디 경계 글쇠

ISO/IEC 10646(UCS, Unicode)에는 첫가끝 조합형에 옛 한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며, 아래아 한글 및 워드(Plus Pack을 설치해야 함) 등의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옛 한글 입력, 편집,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옛 한글을 입력하는 자판은 각 프로그램 개발자가 알아서 만들어 지원할 뿐 표준적인 옛 한글 입력 자판이나 옛 한글 입력 방식이 없다.

특히 두벌식으로 옛 한글을 입력할 때에는 닿소리 글자가 이어서 들어올 때 글자마디의 경계를 자판에서 어떤 글쇠로 알려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낼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래서 두벌식 옛 한글 자판에서는 글자마디의 경계를 나타내는 글쇠(아래에서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라고 부름)를 정해야 하는데, 표준적인 글자마디 경계 글쇠가 정해져 있지 않다.

두벌식 요즘 한글 자판에서는 글자마디 경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문제이며, 이것이 옛 한글 자판의 크나큰 특성이다. 쉽게 말해서 두벌식 자판에서는 글자마디 경계 문제 때문에 요즘 한글과 옛 한글을 치는 방식이 다르다.

한편 세벌식 자판에서는 자판 자체에서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분하여 치기 때문에 글자마디 경계 글쇠가 전혀 필요 없다. 쉽게 말해서 세벌식 자판에서는 요즘 한글과 옛 한글을 치는 방식이 꼭 같다.

글자마디 경계 글쇠에 대하여는 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2 아래 아 한글과 MS 오피스의 두벌식에서 쓰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어떻게 정의하여 쓰고 있을까?

아래 아 한글에는 옛 한글 자판으로 세벌식과 두벌식이 모두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세벌식은 글자마디 경계 글쇠가 필요 없다. 아래 아 한글의 두벌식 옛 한글 자판에는 글자마디 경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2011.11.03. 기준), 글자마디 경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면 글자마디를 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다가 다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된다. 이 방식을 따르면 보통 화살표 글쇠를 외워서 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옛 한글 타자 속도가 좀 떨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 Office에서는 에ске이프(ESC) 글쇠를 글자마다 경계 글쇠로 쓰고 있다.

1.3 끝소리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

또한 현재 UCS의 한글 첫가끝 조합형에서는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고 있다. 보기를 들어 첫소리 글자 기역 (ㄱ)의 부호 자리는 U1100 이고, 끝소리 글자 기역 (ㄱ)의 부호 자리는 U11A8 이다.

현재의 두벌식 자판으로는 이 두 글자를 구별하여 입력할 수 없는바, 앞으로 한글 자판에서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Microsoft의 워드에서는 채움 글자(Filler)를 넣으려면 Shift-J를 치면 된다. 보기를 들어서 끝소리 글자 기역 (U11A8)을 넣고자 하면 Shift-J + Shift-J + ㄱ 을 치면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옛 한글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며, 요즘 한글에서도 일어난다. 다만 옛 한글에 끝소리 겹글자가 많기 때문에, 옛 한글 입력에서 좀 더 관심을 끌게 되는 문제일 뿐이다.

1.4 옛 한글 자판: KS X ISO/IEC 10646 해설에서 소개쯤은 해야

옛 한글 자판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할지는 좀 더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KS X ISO/IEC 10646에 옛 한글이 1993 년부터 들어가 있었으므로 이제 거의 20 년이 되어가고, 널리 쓰는 한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아래 아 한글과 오피스 워드에서 옛 한글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표준 관련 문서에서 옛 한글 자판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옛 한글을 지원하는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 및 입력 방식(글자마다 경계 글쇠)에 대하여

적어도 KS X ISO/IEC 10646의 해설에 소개짚은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2. 옛 한글을 지원하는 자판이 지원해야 할 기능

2.1에서 옛 한글에서만 쓰는 글자를 살펴본 뒤, 2.2에서는 한글 자판의 별식인 세별식, 두별식, 네별식 등을 알아보자. 끝으로 2.3에서는 옛 한글 자판을 만들 때의 원칙 및 가정을 살펴보자.

2.1 옛 한글에서만 쓰는 글자

옛 한글에서는, 요즘 한글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를 썼다. 닿소리와 홀소리 각각에 대하여 홀글자와 겹글자로 나누어 보기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1) 옛 닿소리 홀글자 (: 반 시옷 또는 여린 시옷, : 옛 이응 또는 꼭지 달린 이응, ㅎ : 된 이응, 여린 히읏),
- 2) 옛 홀소리 홀글자 (ㆍ : 아래 아),
- 3) 옛 닿소리 겹글자 (보기 ㅂㅅㄱ, ㅂㄱ 따위),
- 4) 옛 홀소리 겹글자 (ㅍ, ㅍ : 아래 아 + ㅣ 따위)

옛 한글 자료를 컴퓨터에 넣기 위해서는 옛 한글 자판이 필요하다. 보기를 들어, 한글 사전 또는 웹 문서에 옛 한글을 넣으려면 옛 한글 자판을 써서 옛 한글을 쳐야 한다.

옛 한글을 치기 위해서는 요즘 한글만을 칠 수 있는 자판을 바탕으로 조금 고쳐 쓰는 방안도 있고, 요즘 한글 자판과는 아주 다른 옛 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을 따로 만들어 쓰는 방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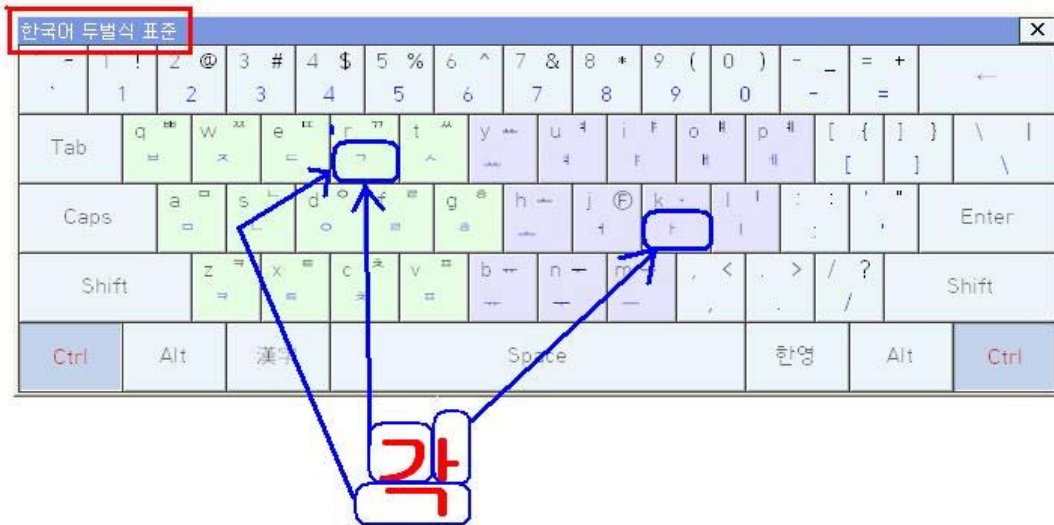
2.2 한글 자판의 별식: 세별식, 두별식, 네별식

지금 컴퓨터에서 쓰이고 있는 자판으로는 세별식과 두별식(표준)이 있다.

한글 자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식"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기로 하자. 세별식이란, 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그리고 끝소리 글자(받침)가 각각 한 별씩 있기 때문에 세 별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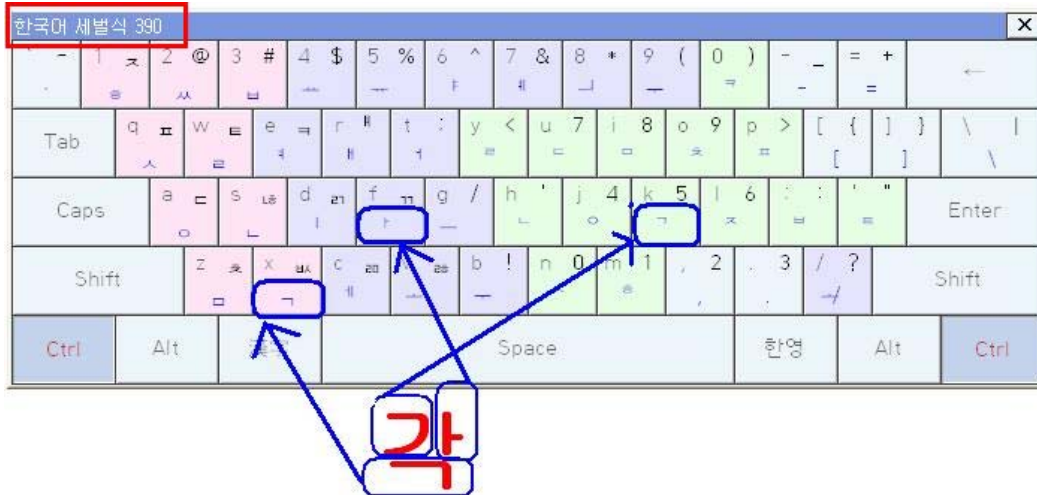
두별식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같은 글쇠에 있으므로 한 별이 줄어들어서 두별식(닿소리 글자 한 별과 홀소리 글자 한 별)이라고 부른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기를 들어 보자. "각"이라는 한글 글자마디를 칠 때, 아래 두별식 자판에서 보듯이 두별식에서는 첫소리 글자 "ㄱ" 과 끝소리 글자 "ㄱ" 이 꼭 같은 글쇠를 친다. 로마자로 생각해 보면, "각"을 칠 때 "rkr" 글쇠를 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r이라는 같은 글쇠를 두 번 친다.



그러면 세별식은 두별식과 어떻게 다른가? "각"이라는 한글 글자마디를 칠 때, 아래 세별식 자판에서 보듯이 세별식에서는 첫소리 글자 "ㄱ" 과 끝소리 글자 "ㄱ" 이 완전히 다른 글쇠를 친다. 로마자로 생각해 보면, "각"을 칠 때 "kfx" 글쇠를 치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글쇠 세 개가 모두 다르다. 첫소리 글자 ㄱ은 k 글쇠를 치고, 끝소리 글자(받침) ㄱ은

x 글쇠를 친다.



이처럼 세벌식과 두벌식은 치는 방법이 아주 다른데, 이 차이가 옛 한글을 칠 때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옛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타자기에서는 네벌식 한글 자판도 있었는데, 네벌식은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각각 한 벌씩 있고, 가운뎃소리 글자가 두 벌이나 있어서 모두 더하면 네 벌이 되므로 네벌식이라 부른다. 네벌식에서 가운뎃소리 글자가 두 벌이 있는 것은, 끝소리 글자(받침)가 있을 때는 가운뎃소리 글자가 좀 짧고(보기: "방"에서의 ㅏ), 끝소리 글자(받침)가 없을 때는 가운뎃소리 글자를 좀 길게 하여 (보기: "바"에서의 ㅏ) 한 글자마디가 늘 같은 크기의 네모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 "가"와 "각"이라는 글자마디를 칠 때 두벌식과 세벌식에서는 각각 "ㅏ"를 꼭 같은 글쇠를 쓰지만, 네벌식에서는 다른 글쇠를 쓴다.

꽤 오래 전에는 다섯벌식 타자기 자판도 있었는데, 한글 글자마디 하나를 최대한 네모꼴 안에 넣어서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3 옛 한글 자판을 만들 때의 원칙 및 가정

옛 한글 자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가정하였다.

1) 일반적으로 말해서, 옛 한글을 치기 위해서는 요즘 한글 자판을 바탕으로 조금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요즘 한글 자판과는 아주 다른 옛 한글을 치기에 좋은 자판을 따로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즘 한글 자판과 아주 다른 옛 한글 자판은 별로 나와 있지 않다.

현재 나와 있는 옛 한글 자판은 크게 세벌식과 두벌식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옛 한글 자판만 검토하겠다.

2) 옛 한글에 나오는 방점 두 개(홀점과 겹점)는 옛 한글 자판 검토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3) 홀소리 (가운뎃소리) 겹글자를 치는 방법은 요즘 한글 자판이나 옛 한글 자판에서 다를 바가 거의 없으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닿소리 겹글자(다시 말해서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3. 요즘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

3.1에서는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을 치는 방법을, 3.2에서는 세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을 치는 방법을 살펴보자.

3.1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 치기

컴퓨터에서 두벌식 자판으로 요즘 글자를 치면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닿소리 글자로 치게 되므로 프로그램에서 닿소리 글자가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

리 글자인지를 구별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글자마디 경계 문제가 있다.

보기를 들어 요즘 한글에서 만일 "ㅃ" 글쇠가 없다면(두벌식에는 ㅃ 글쇠가 Q 자리에 있다) "ㅇ, ㅍ, ㄹ, ㅂ, ㅅ, ㅈ" 이 잇달아 들어올 때, 이것이 "얹ㅂ"인지 "얹ㅃ"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두벌식 자판에서는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ㄱ, ㄷ, ㅃ, ㅅ, ㅆ)는 글쇠를 따로 두어서 첫소리 겹글자를 한 번에 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ㅇ, ㅍ, ㄹ, ㅃ, ㅈ"(글쇠를 다섯 번 누름)이 들어오면 "얹ㅃ"가 되고, "ㅇ, ㅍ, ㄹ, ㅂ, ㅈ"(글쇠를 여섯 번 누름)이 들어오면, "얹ㅂ"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글자마디 경계 문제이다.

다른 보기를 들면, "ㅇ, ㅈ, ㄱ, ㅈ, ㅈ, ㅈ"(글쇠를 네 번 누름)이 들어오면 "아끼"가 되고, "ㅇ, ㅈ, ㄱ, ㄱ, ㄱ, ㅈ"(글쇠를 다섯 번 누름)이 들어오면, "약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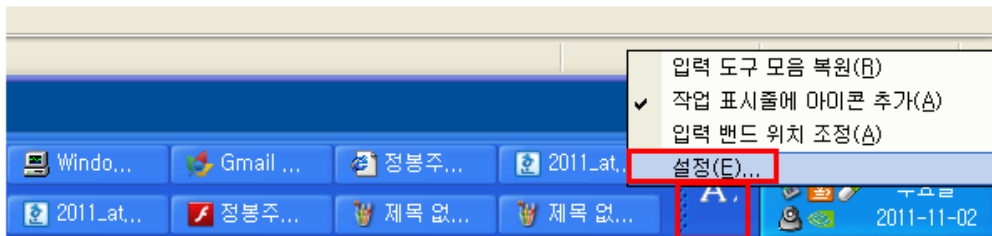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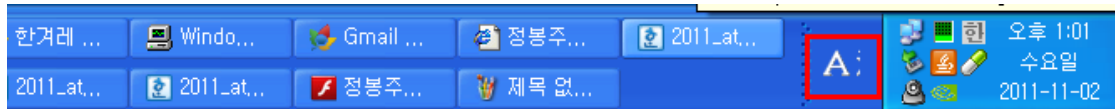
두벌식 자판에서 글자마디 경계 문제를 풀기 위하여 쓰는 방법은 첫소리 겹글자 5 개 각각을 모두 글쇠 하나에 따로 배치하는 것이다. 요즘 한글에서 쓸 수 있는 첫소리 겹글자는 다섯 개(ㄱ, ㄷ, ㅃ, ㅅ, ㅆ)뿐이기 때문에 다섯 글자를 글쇠에 따로 배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대응하는 홑글자 글쇠의 윗글쇠에 겹글자를 두었기 때문에 외워서 치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요즘 한글에서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글자별로 홑글자와 겹글자의 수가 아래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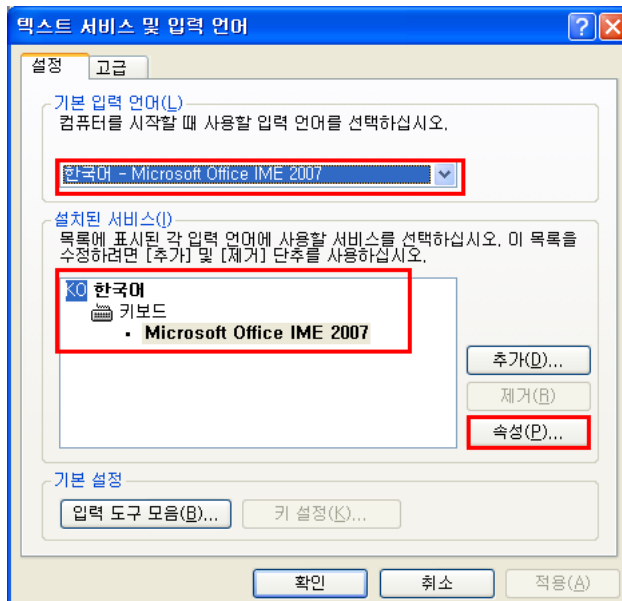
요즘 한글에서	홑글자	겹글자	홑글자 + 겹글자
첫소리 글자	14	5	19
가운뎃소리 글자	10	11	21
끝소리 글자	14	13	27
첫+가+끝소리 글자	38	29	67

3.2 세벌식 자판으로 요즘 한글 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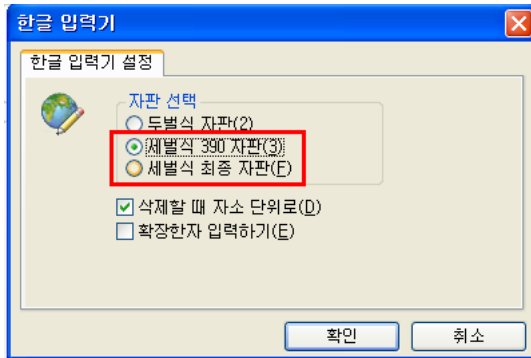
먼저 개인용 컴퓨터에서 세벌식 자판을 쓰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윈도우 화면의 맨 아래에서 A가 있는 곳 위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른 뒤, 설정을 고른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Microsoft Office IME 2007"이 골라진 상태에서 속성 단추를 누른다.



속성 단추를 누르면 한글 입력 설정 화면(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벌식 390 (또는 세벌식 최종) 자판을 고른 뒤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웹 브라우저, 워드, 메모장 등 거의 모든 (한컴의 아래 아 한글을 예외) 프로그램에서 두벌식이 아닌 세벌식 자판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컴의 HWP 프로그램은 윈도우의 자판 설정과는 따로 HWP 안에서 따로 다음과 같이 자판 설정을 해야 한다. 아래 아 한글 안에서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를 누르면 입력기 환경 설정 화면이 뜬다.



입력기 환경 설정 창에서 원하는 세벌식 글자판을 고른 뒤 설정 단추를 누르면 세벌식 자판 설정이 끝나는데, 이 때부터 HWP 안에서는 세벌식으로 글자가 쳐지게 된다.



컴퓨터에서 세벌식 자판으로 요즘 글자를 치면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구별하여 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곧바로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리 글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자마다 경계 문제가 전혀 없다.

보기를 들어 요즘 한글에서 세벌식 자판에서 "ㅇ, ㅍ, ㅌ, ㅍ, ㅍ, ㅍ, ㅍ" (여기에서 밑줄 친 글자 ㅍ, ㅍ은 끝소리 글자이고, 밑줄이 없는 ㅇ, ㅍ은 첫소리 글자이다)가 들어오면, "얹바"이고, "ㅇ, ㅍ, ㅌ, ㅍ, ㅍ, ㅍ, ㅍ" (여기에서 밑줄 친 글자 ㅍ은 끝소리 글자이고, 밑줄이 없는 ㅍ, ㅍ은 첫소리 글자이다)가 들어오면 "얹빠"임을 곧바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세벌식 자판에서는 이른바 글자마다 경계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다른 보기를 들면, "ㅇ, ㅍ, ㅍ, ㅍ, ㅍ"(글쇠를 다섯 번 누름; 밑줄이 없는 글자 ㅍ, ㅍ은 모두 첫소리 글자)이 들어오면 "야까"가 되고, "ㅇ, ㅍ, ㅍ, ㅍ, ㅍ"(글쇠를 다섯 번 누름; 밑줄 친 글자 ㅍ은 끝소리 글자이고 밑줄이 없는 ㅍ은 첫소리 글자임)이 들어오면, "약가"가 된다.

4.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

4.1에서는 옛 한글 첫소리 겹글자가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본 뒤, 4.2에서 두벌식 옛 한글 자판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자.

4.1 옛 한글 첫소리 겹글자의 수는 몇 개?

요즘 한글에서 첫소리 겹글자가 다섯 개뿐이기 때문에,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 다섯 개의 글자에만 따로 글쇠를 주면, 글자마다 경계 모호성 문제는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한글을 썼던 과거 600여 년 동안 옛 한글 맞춤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한글에서 썼던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를 모두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제 옛 한글 겹글자를 "거의" 다 찾아냈다고 짐작하고 있지만, 어느 날 옛 한글 문헌에서 이때까지 몰랐던 닿소리 겹글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옛 한글 겹글자를 모두 알지 못 한다는 가정 아래 옛 한글 자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SO/IEC 10646의 첫가끝 조합형에 들어있는 글자(홀글자와 겹글자 모두 포함하여)는 모두 355 자이고, 그 밖에 첫소리 채움 글자와 가운데소리 채움 글자가 각각 한 자씩 있다. 이 355 자를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글자 각각에 대해 홀글자와 겹글자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옛 한글에서	홀글자	겹글자	홀글자 + 겹글자
첫소리 글자	23 (= 17 + 6)	101	124
가운뎃소리 글자	11	83	94
끝소리 글자	17	120	137
첫+가+끝소리 글자	51	304	355

* 참고. 옛 한글에서는 요즘 한글에서 쓰는 글자도 모두 쓰므로, 위의 표에 요즘 한글 글자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

만일 요즘 한글 두벌식 글자판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자면 위 표에서 보듯이 첫소리 겹글자 101 자에 대하여 모두 따로 글쇠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옛 한글 첫소리 겹글자를 글쇠에 따로 배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한 101 자를 아무리 잘 배열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많은 글쇠 자리를 외워서 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런 두벌식 자판을 도저히 쓸 수 없다.

참고로,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은 요즘 옛 한글 자판에 옛 홀글자 13(첫소리 옛 홀글자 9 자, 가운뎃소리 옛 홀글자 1 자, 끝소리 옛 홀글자 3 자)자만 더 넣으면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4.2 두벌식 옛 한글 자판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지금 쓰고 있는 두벌식 자판을 고쳐서 옛 한글 자판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방법: 옛 한글 첫소리 겹글자 96 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

요즘 글자의 첫소리 겹글자 다섯 개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었듯이, 옛 한글에 나오는 첫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어 한 번에 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겹글자 101 자 가운데 요즘 첫소리 겹글자 5 자를 빼면 96 자가 되는데, 이 96 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

는 방법이다. (물론 이밖에도 옛 한글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홑글자 13 자에도 글쇠를 따로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큰 어려움이 따른다.

1) 첫째, 이렇게 100 여 개의 겹글자에 글쇠를 따로 주면 자판을 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판을 외워서 치는 것을 포기하고 각 겹글자를 어떻게 치는지 적은 표를 보면서 치게 되어 능률이 많이 떨어진다. 한 마디로 쓸 수 없는 자판이다.

2) 한 번 자판을 정했는데, 만일 새로운 첫소리 겹글자를 알게 되면 새 겹글자를 자판에 더 넣어야 한다. 새 겹글자를 자판에 넣을 때마다 자판이 바뀌고, 그 때마다 자판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혼란과 불편이 생긴다.

3) 보통의 자판은 글쇠가 한 개를 넘지 못하는데 윗글자쇠[쉬프트 키]를 쓴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백 개이다. 그 보다 더 많은 글자를 자판에 배열하려면, 특별한 글쇠(컨트롤, 앞선, 올터니트 글쇠 따위)와 같이 쳐야 하는데, 한 글자를 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글쇠를 같이 쳐야 한다면 그것을 다 외워서 치지 못하고, 아마도 옆에 표를 두고 보면서 치게 되니 이는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이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보듯이 세벌식으로 하면 이런 불편함이 없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참고 1. 옛 한글 끝소리 겹글자 118 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

위에서 본 첫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 대신,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두벌식 자판에서 끝소리 겹글자 120 자 가운데 요즘 첫소리 겹글자 2 자(ㄱ, ㄴ)를 빼면 118 자가 되는데, 이 118 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이다. (물론 이밖에도 옛 한글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홑글자 13 자에도 글쇠를 따로 주어야 한다.)

이 방법은 위의 첫째 방법과 거의 같은데, 만일 끝소리 겹글자의 수가 첫소리 겹글자의 수보다 훨씬 적다면 겹글자를 위한 글쇠가 줄어들므로, 이 방법은 첫째 방법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현재 끝소리 겹글자의 수가 120으로 첫소리 겹글자 수 101보다 크기 때문에 첫째

방법보다 사실은 조금 더 나쁜 방법이다.

더욱이 이 방법은 위에서 본 첫째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세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요즘 한글 자판은 첫소리 겹글자를 한 번에 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옛 한글 자판에서는 끝소리 겹글자를 한 번에 쳐야 하므로, 요즘 한글 자판과 옛 한글 자판의 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참고 2. 옛 한글 첫소리와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

위의 첫째 방법과 참고 1의 방법을 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첫소리 겹글자와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는 방법인데, 첫째 방법이나 참고 1의 방법보다 더 많은 글쇠가 필요하게 된다. 첫소리 겹글자 101 자와 끝소리 겹글자 120를 더하면 221 자가 되는데, 이 가운데 겹치는 겹글자가 있으므로 아마 글쇠를 따로 주어야 하는 겹글자 수는 170-190 자쯤이 되지 않을까 한다.

글쇠 수가 첫째 방법이나 참고 1 방법보다 더 많으므로 외워야 할 글쇠(글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 외우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참고 2의 방법에서처럼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겹글자에 모두 글쇠를 따로 주면 치는 사람은 힘들지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고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방법은 초기 실험 단계에서는 해 볼 수 있지만, 실용 단계에서 쓰기에는 알맞지 못하다.

둘째 방법: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쓰는 방법

두벌식 자판으로 옛글자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글자마디의 경계에 모호성이 있을 때에는, 글자마디의 마지막 글자(끝소리 글자가 있을 때는 끝소리 글자, 그렇지 않으면 가운뎃소리 글자)를 치고 나서 다음에 첫소리 글자를 치기 전에 한 글자마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글쇠를 한 자 치도록 한다.

보기를 들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에서는 ESC(에스케이프) 글쇠를 글자마

다 경계 글쇠로 쓰고 있다. 한컴의 HWP에서는 글자마디가 끝난 뒤 ->(오른쪽 화살표)를 친 뒤 다시 <-(왼쪽 화살표)를 침으로써 글자마디 경계를 나타낸다.

이 방법의 분명한 장점은 100여 개나 되는 많은 첫소리 (또는 끝소리) 겹글자에 글쇠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첫째 방법이나 그와 비슷한 참고 1, 참고 2의 방법보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요즘 한글 자판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글자마디 경계 모호성이 있을 때마다 쳐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진다.

물론 아주 많은 경우에 주어진 글자마디 두 개 사이에 글자마디 경계 모호성이 없고 따라서 그런 때에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치지 않지만,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칠 때에는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된다.

2) 옛 한글을 칠 때, 필요한 때에는 (다시 말하여, 글자마디 경계 모호성이 있을 때에는)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쳐야 하는바, 요즘 한글 자판을 칠 때와 옛 한글 자판을 칠 때의 방법이 달라서 혼란이 오게 된다.

이처럼 요즘 한글과 옛 한글 칠 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타자 속도도 좀 떨어지게 된다.

옛 한글 자판에서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쓰는 이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과거 두벌식 인쇄 전신기(telex)에서 이미 써 보았으므로 그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인쇄 전신기에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 그 전에 두벌식 인쇄 전신기 자판에서는 글자마디 사이에 무조건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쳤지만, 현재의 컴퓨터 두벌식 자판에서는 많은 경우에 글자마디 경계의 모호성이 없기 때문에 글자마디 경계 글쇠를 치는 회수는 많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벌식 자판으로 옛 한글을 치면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쓰더라도 문제점과 비효율성이 따르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도 없는 해결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이다. 이제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옛 한글 자판을 만들 때를 알아보자.

5. 세벌식 옛 한글 자판

이제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이 왜 좋은지 살펴보자. 5.1에서는 요즘 세벌식 자판에 옛 흘글자 13 자만 더하면 옛 한글 자판이 된다는 것을 보겠다. 세벌식과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칠 때의 다른 점을, 5.2에서는 원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5.3에서는 실제 보기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겠다.

5.1 요즘 세벌식 자판에 옛 흘글자 13 자만 더하면 옛 한글 자판이 된다

옛 한글에 나오는 모든 닿소리 (첫소리와 끝소리) 겹글자와 흘소리 겹글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옛 한글에 나오는 닿소리 (첫소리와 끝소리) 흘글자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반 (여린) 시읏, 옛 (꼭지 달린) 이응, 된 이응(여린 히읏)이 각각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로 올 수 있고, 그리고 흘소리(가운뎃소리) 흘글자는 아래 아가 있다. 이 밖에 다른 나라 말을 적는 데 쓰는 정치음과 치두음을 위한 첫소리 글자 여섯 자 (ㅅ, ㅆ, ㅈ, ㅊ, ㅅ, ㅅ)가 있다.

따라서 옛 한글에만 나오는 흘글자는 첫소리 글자 아홉 자, 가운뎃소리 글자 한 자, 끝소리 글자 세 자 해서 모두 열 석 자이다. 이 열 세 글자만 요즘 세벌식 자판에 더해 주면 옛 한글 자판이 되며, 이 자판으로 옛 한글을 아무 문제없이 잘 입력할 수 있으며, 더욱이 요즘 한글이나 옛 한글을 치는 방식이 꼭 같다는 장점도 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옛 겹글자를 다 몰라도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겹글자가 나오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된다.

5.2 세벌식과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칠 때의 차이: 원리

이제 옛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의 차이를 보기를 들어서 알아보자. 위에서 본 두벌식 옛 한글 자판 방식 두 가지 가운데, 이미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둘째 방법(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쓰는)을 살펴보기로 하자.

5.2.1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쓰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옛 한글 치기

요즘 끝소리 겹글자 "ㄴㅂ" 이 있고, 옛 첫소리 겹글자 "ㅂㅅ" 이 있다. 만일 글자마다 경계 글쇠가 없는 두벌식 자판으로 "ㄴ, ㅂ, ㅅ"을(글쇠를 세 번) 치면,

- 끝소리 홀글자 "ㄴ" 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인지,
- 끝소리 겹글자 "ㄴㅂ"과 첫소리 홀글자 "ㅅ"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벌식 옛 한글 자판에서는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써서 다음과 같이 구별해야 한다.

가) 끝소리 겹글자 "ㄴㅂ"과 첫소리 홀글자 "ㅅ"이면,

- "ㄴ, ㅂ"(글쇠를 두 번 침)을 친 뒤,
-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치고 나서,
- "ㅅ"을 친다.

나) 끝소리 홀글자 "ㄴ"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이면,

- "ㄴ"을 치고 나서
-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치고 나서
- "ㅂ, ㅅ"(글쇠를 두 번 침)을 친다.

5.2.2 세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옛 한글 치기

그러면 세벌식으로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자. 세벌식에서는

- 가) 끝소리 겹글자 "ㄴㅂ"과 첫소리 흘글자 "ㅅ"이면,
- 끝소리 흘글자 "ㄴ, ㅂ"을(글쇠를 두 번) 친 뒤,
 - 첫소리 흘글자 "ㅅ"(글쇠를 한 번)을 친다.

여기서 보듯이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전혀 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글쇠를 칠 때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리 글자인지에 따라 다른 글쇠를 치기 때문이다.

- 나) 끝소리 흘글자 "ㄹ"과 첫소리 겹글자 "ㅂㅅ"이면,
- 끝소리 흘글자 "ㄹ"을(글쇠를 한 번) 친 뒤,
 - 첫소리 흘글자 "ㅂ, ㅅ"(글쇠를 두 번)을 친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전혀 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글쇠를 칠 때 첫소리 글자인지 끝소리 글자인지에 따라 다른 글쇠를 치기 때문이다.

옛 한글을 친다고 하여 치는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옛 글자를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요즘 글자를 치는 사람이 옛 한글을 치고자 하면 옛 한글 흘자에 대응하는 글쇠 13 개만 더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 준다.

5.3 세벌식과 두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칠 때의 차이: 실제 보기

이제 옛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을 비교해 보았으므로, 실제로 옛 낱말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 보기를 보자.

유 창돈의 <<이조어 사전>>에 보면 "멜썌"이라는 낱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 치면, "멜썌" 인지 "멧근" 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ㅅ 이 첫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고, 끝소리 글자에 붙어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처음에 나오는 것이 옛 한글 사전에 나오는 낱말인데, 글자마다 경계 글쇠를 치지 않으면 요즘 두벌식 자판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들과 구별할 수가 없다):

(메이다, 멩이다): 첫소리 두겹 글자 "oo"

(긱송, 깃동): 첫소리 두겹 글자 "sc"

(뫓송, 뫓봉): 첫소리 두겹 글자 "sb"

(어씩다, 업씩다, 없딤다): 첫소리 세겹 글자 "wcc"

(티씩다, 팀씩다, 톱딤다): 첫소리 두겹 글자 "sc"

위의 보기 다섯 개 가운데 마지막 두 개의 보기에서는 두벌식에서는 세 가지로까지 풀이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6.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 (HWP에서 쓰는 자판)

6에서는 현재의 HWP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살펴보겠는데, 이 393 자판은 김 경석이 만든 자판이다.

6.1에서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옛 한글 흘글자를 배열한 과정을 보고, 6.2에서는 아래 아 한글에 나오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살펴보겠다. 6.3에서는 아래 아 한글에서 자판을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6.1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옛 한글 흘글자를 배열한 과정

아래 자판은 현재 아래 아 한글에서 쓰고 있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이다.

아래 그림의 윗쪽에 있는 한글 글자는 윗글자쇠(shift key)를 누르지 않고 그냥 칠 때의 글자이고, 그림의 아랫쪽에 있는 글자는 윗글자쇠를 누르고 칠 때의 글자이다.



(윗 그림) 윗글자쇠(shift key)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자판
 (아래 그림) 윗글자쇠(shift key)를 눌렀을 때의 자판

그림. 아래아 한글에서 쓰는 옛한글 자판은, 김 경석이 1993년에 제안한 <393 세벌식 옛한글 자판>이다.

옛 한글 글자의 자리를 정한 과정을 조금 설명하면, 옛 첫소리 흘글자와 옛 가운뎃소리 흘글자의 경우 요즘 글자와 비슷한 자리에 놓아서 외우기 쉽도록 했다. 여린(반) 시옷은 시옷의 윗글자쇠 자리에, 옛(꼭지 달린) 이응은 이응의 윗글자쇠 자리에, 된 이응(여린 히읗)은 히읗의 윗글자쇠 자리에, 그리고 아래 아는 ㅏ 의 윗글자쇠 자리에 각각 놓았다.

그런데, 끝소리 흘글자의 경우에는 시옷, 이응, 히읗의 윗글자쇠 자리에 이미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끝소리 글자 ㅅ(시옷)의 윗글자쇠 자리에는 ㅍ(피읖)이 있고, 끝소리 글자 ㅇ(이응)의 윗글자쇠 자리에는 ㄷ(디귤)이 있고, 끝소리 글자 ㅎ(히읗)의 윗글자쇠 자리에는 ㅈ(지읒)이 있다.

그래서 옛 끝소리 글자 세 개는 그와 비슷한 요즘 글자 "가까이" 있는 빈 자리에 놓았다.

구체적으로 반 (여린) 시옷은 끝소리 글자 ㅅ(쌍 시옷, 숫자 2 자리)의 윗글자쇠 자리에, 된 이응(여린 히읇)은 숫자 1의 왼쪽에 있는 글쇠(QWERTY 자판에서는 ` (grave accent, 프랑스 말 등에서 쓰는 악상 그라브/~(물결표)가 있는 글쇠) 자리에, 그리고 옛(꼭지 달린) 이응은 숫자 1의 왼쪽에 있는 글쇠의 윗글자쇠 자리에 두었다.

6.2 아래 아 한글에 나오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 소개

1) 아래 내용은 아래 아 한글 2007에서 도움말 -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내용이다.

한국어 세벌식 옛글 자판

한국어 세벌식 옛글 자판은 다음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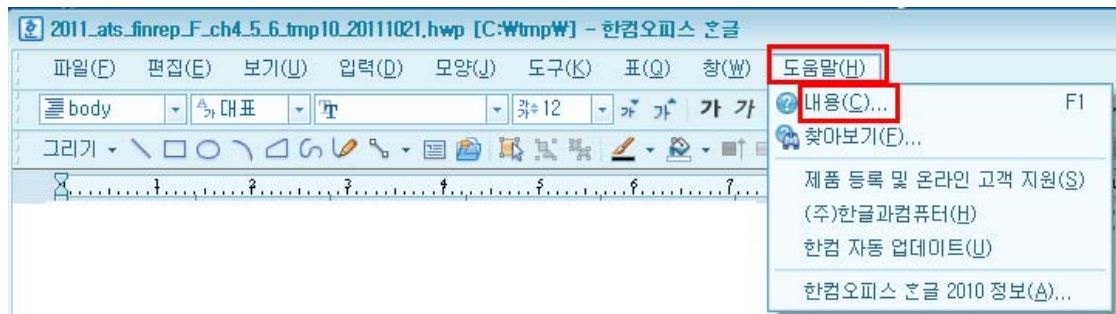
- **자판 개발자:** 김경석 교수(부산대 공대 정보 컴퓨터 공학부) (1993.12.31 발표)
- **참고 문헌:**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김경석 지음, 영진 출판사, 1995.

그리고 한국어 세벌식 옛글 자판의 정식 명칭은 '393 (세벌식) 옛한글 자판'입니다. 그런데 393 옛글 자판에서는 대문자 Y(윗글쇠)에 가운데 점 2개(·)가 배당되어 있고, 대문자 P(윗글쇠)는 글쇠가 배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세벌식 옛글 자판에서는 대문자 Y(윗글쇠)에 '<'를, 대문자 P(윗글쇠)에 '>'를 배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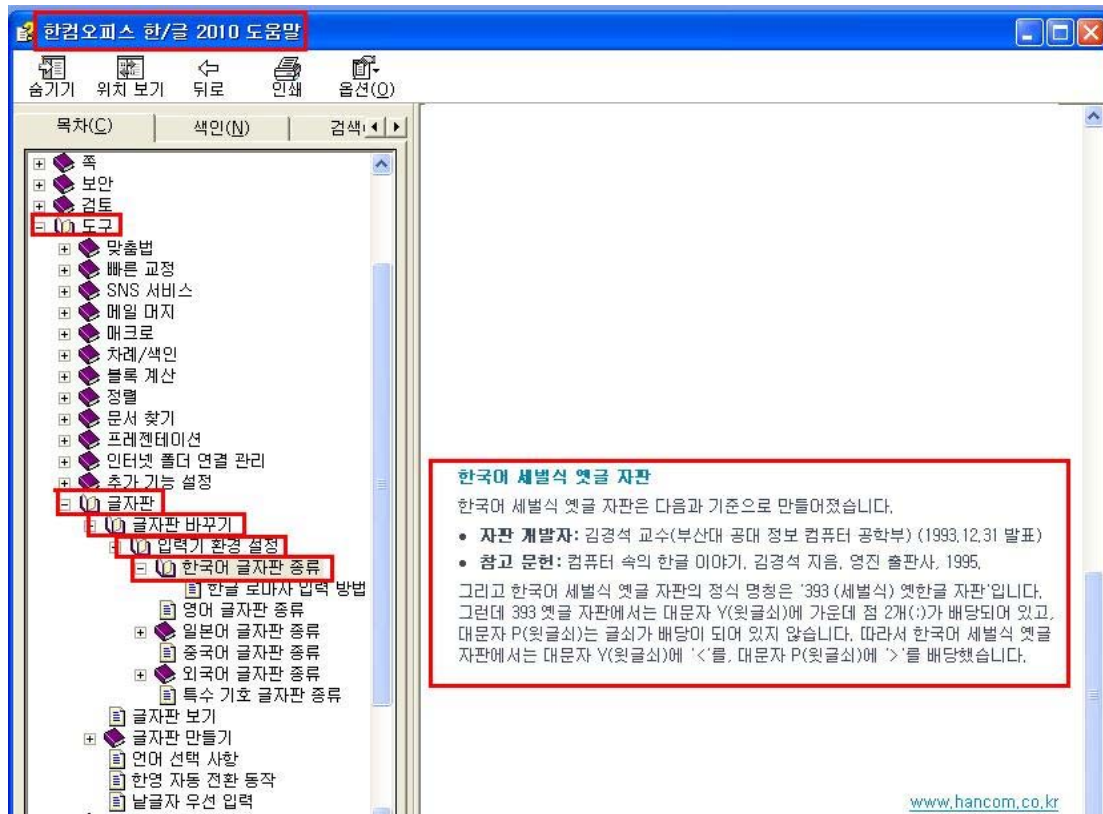
2) 아래 내용은 한컴의 한글 워디안에 소개되어 있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관한 부분이다.

한글 워디안의 한글 세벌식 옛글 자판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컴퓨터 공학부 김경석 교수가 개발하여 1993년 12월 31일 발표한 것입니다.(참고 문헌 : 컴퓨터 속의 한글 이야기. 김경석 지음. 영진 출판사, 1995.)

3) 한컴의 아래 아 한글 2010에서 도움말 -->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아래 화면이 나온다.



아래 아 한글 2010 도움말에 소개되어 있는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관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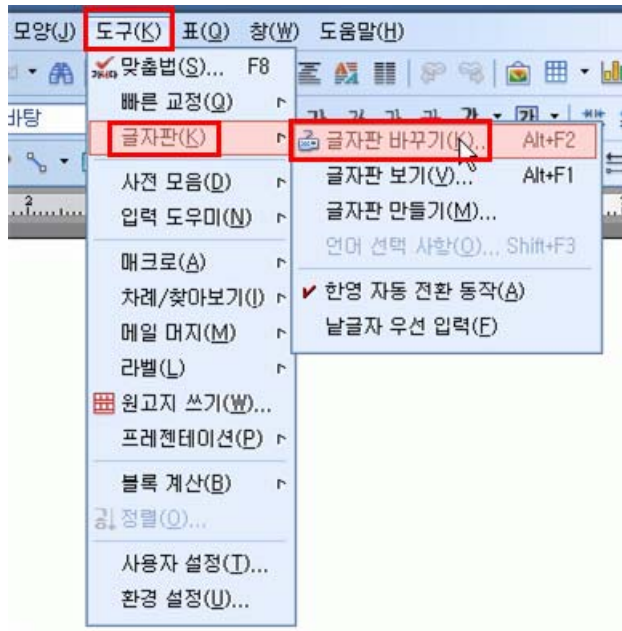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관한 정보는 아래 누리집에 들어가도 볼 수 있다:

<http://asadal.pusan.ac.kr/~gimgs0/hangeul/kbd/>

6.3 아래 아 한글에서 옛 한글 자판으로 바꾸기

아래 아 한글 2010에서 옛 한글 자판으로 바꾸어 쓰는 방법을 살펴보자.

아래 아 한글을 시작한 뒤 도구 -> 글자판 -> 글자판 바꾸기를 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기 환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글자판을 옛글 자판으로 바꿀 수 있다.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쓰려면 아래에서 "세벌식 옛글"을 고르면 되고,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쓰려면 "두벌식 옛글"을 고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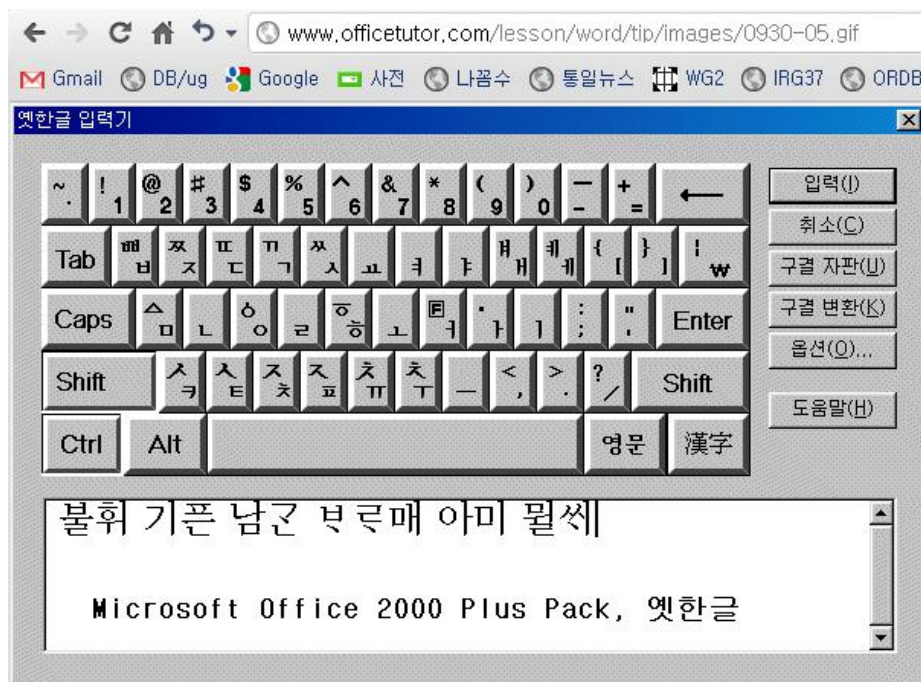


한컴의 아래 아 한글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이 아래에 나와 있다. 위의 그림은 윗글자쇠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글자이고, 그 아래 그림은 윗글자쇠를 눌렀을 때의 한글 글자인데, 두벌식 옛 한글 자판에서 옛 한글 글자는 모두 윗글자쇠 자리에 놓여 있다.



7. Microsoft의 워드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 소개

워드에서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만 있고,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은 없다. 따라서 옛 한글을 칠 때 글자마다 경계의 모호성이 있는데, 글자마다 경계 글쇠는 ESC(에스케이프)이다.



보기를 들어 "뭇씨"이라는 낱말을 치고자 하면 "ㅁ ㅏ ㅣ ㅅ <ESC> ㅅ ㅅ ㅏ ㅇ"이라고 치면 된다.

그리고 채움 글자를 치고자 하면 Shift-J를 친다. 보기를 들어서 홀로 있는 끝소리 글자 ㅏ(U11A8) -- 불완전한 글자마다 - 을 치려면: Shift-J, Shift-J, ㅏ 을 치면 된다.

8. 옛 한글 자판: 맺는말

옛 한글을 칠 때에는 닿소리 글자가 잇달아 들어올 때 글자마다 경계 문제 때문에 두벌식보다 세벌식 자판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한컴의 아래 아 한글 HWP에는 김 경석이 만든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이 잘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에서는 첫가끝 조합형을 지원하는 옛 한글 자판으로 세벌식과 두벌식을 살펴본 뒤, 2에서는 옛 한글을 지원하는 자판이 지원해야 할 기능을 살펴보았다.

3에서는 요즘 한글을 칠 때 세벌식과 두벌식의 차이를 살펴본 뒤, 4에서는 두벌식으로 옛 한글 자판을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세벌식 옛 한글 자판에 대해서는 5에서 살펴본 뒤, 실제로 HWP에서 쓰는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을 6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7에서는 Microsoft의 워드에서 지원하는 두벌식 옛 한글 자판을 보았다.

8에서는 옛 한글 자판과 관련하여 맺는말을 보았고, 끝으로 9에서는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및 옛글자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다.

옛 한글을 칠 때에는 닿소리 글자가 잇달아 들어올 때 글자마다 경계 문제 때문에 두벌식보다 세벌식 자판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아 한글 2010에는 김 경석이 만든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이 잘 돌아가고 있다.

옛 한글 자판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할지는 좀 더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KS X ISO/IEC 10646에 옛 한글이 1993년부터 들어가 있었으므로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널리 쓰는 한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아래 아 한글과 오피스 워드에서 옛 한글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표준 관련 문서에서 옛 한글 자판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옛 한글을 지원하는 세벌식과 두벌식 자판 및 입력 방식(글자마다 경계 글쇠)에 대하여 적어도 KS X ISO/IEC 10646의 해설에 소개쯤은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9. 참고 자료: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및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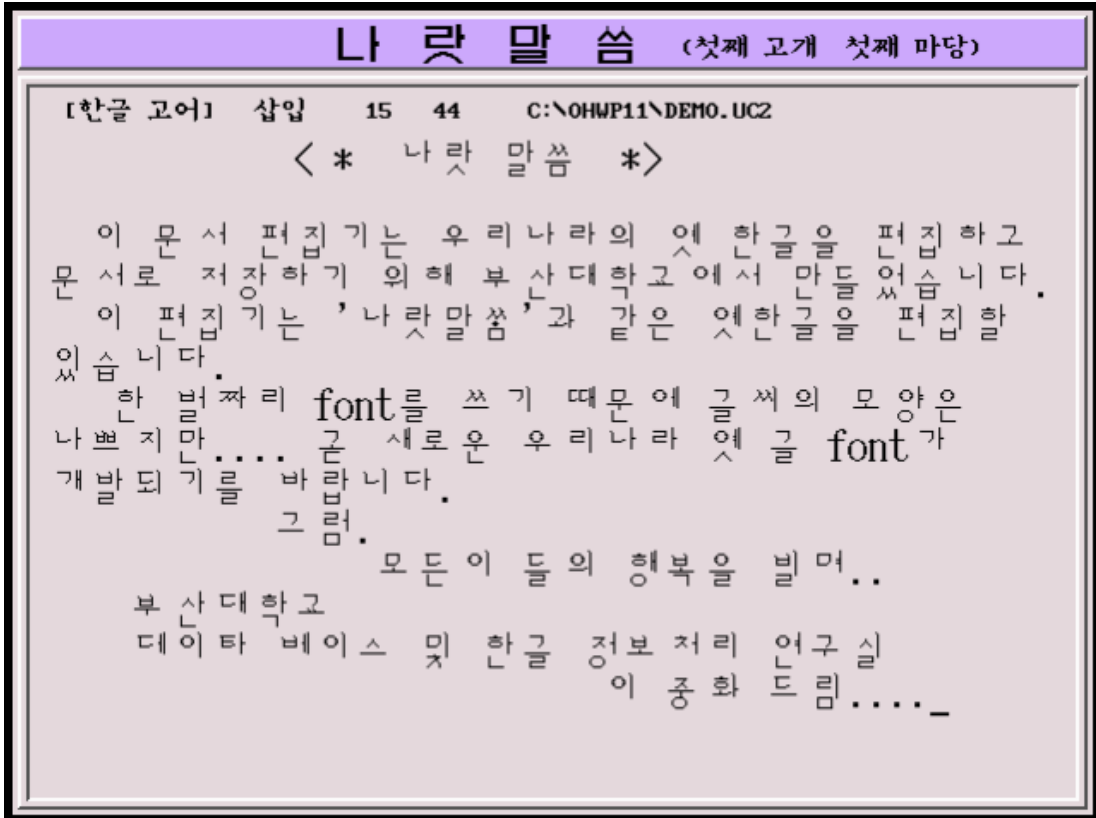
9.1에서는 1993 년과 1994 년에 개발된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을 살펴보고, 9.2에서는 옛글자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겠다.

9.1 옛 한글 문서 편집기 (1993 년, 1994 년 개발) 소개

1993 년에 발간된 ISO/IEC 10646-1 제 1 판에 첫가끝 조합형 옛 한글 글자가 들어갔다. 표준 문서가 나온 바로 그 해에 세계 최초로 첫가끝 조합형 방식으로 옛 한글을 지원하는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을 부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데이터베이스 및 한글 정보 처리 연구실(김 경석 교수)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개발 연구비의 일부는 문화체육부와 학술진흥 재단에서 지원받았다.

1993 년에 옛 한글 문서 편집기 "나랏 말씀" (첫째 고개, 첫째 마당: 1.1 판)을 개발하였고, 1994 년에 이를 개선하여 "나랏 말씀" (첫째 고개, 둘째 마당: 1.2 판)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였다.

아래에 옛 한글을 편집한 그 때의 견본 화면이 나와 있다.



393 세벌식 옛 한글 자판은 이 때 개발하여 나랏 말쌈에서 실제로 썼다.

393 옛 한글 글자판에는 390 한글 자판에 첫소리 흘글자 9개, 가운데소리 흘글자 1개 ,
 끝소리 흘글자 3개 등 모두 13 개의 흘글자와 2 개의 방점을 배열하였다.

9.2 옛글자에 관한 용어

- **옛 닿소리 흘글자**: 우리 말을 적는 데 쓴 반 시옷, 꼭지 달린 이응, 그리고 된 이응 (여린 히읗)의 세 개가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나라 말을 적는 데 쓰는 정치음과 치두음을 위한 첫소리 글자 여섯 자 (ㅅ, ㅆ, ㅈ, ㅊ, ㅋ, ㆁ)가 있다.
- **옛 흘소리 흘글자**: 아래 아 하나가 있다.

- **옛 첫소리 흘글자**: 반 시옷, 꼭지 달린 이응, 그리고 된 이응(여린 히읗)의 세 개가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나라 말을 적는 데 쓰는 정치음과 치두음을 위한 첫소리 글자 여섯 자 (ㅅ, ㅆ, ㅈ, ㅊ, ㅋ, ㆁ)가 있다.
- **옛 가운데소리 흘글자**: 아래 아 하나가 있다.
- **옛 끝소리 흘글자**: 반 시옷, 꼭지 달린 이응, 그리고 된 이응(여린 히읗)의 세 개가 있다.

- **옛 첫소리 겹글자**: 지금은 쓰지 않는 첫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UCS에는 96 자가 들어가 있다.
 - 옛 첫소리 겹글자에는 옛 첫소리 흘글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 **옛 가운데소리 겹글자**: 지금은 쓰지 않는 가운데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UCS에는 72 자가 들어가 있다.
 - 옛 가운데소리 겹글자에는 옛 가운데소리 흘글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보기로는 ㆍ | : 아래 아 + |),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보기: ㅍ, ㅠ)

- **옛 끝소리 겹글자**: 지금은 쓰지 않는 끝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UCS에는 107 자가 들어가 있다.
 - 옛 끝소리 겹글자에는 옛 끝소리 흘글자가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 **옛 첫소리 글자**: 옛 첫소리 흘글자와 옛 첫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옛 가운데소리 글자**: 옛 가운데소리 흘글자와 옛 가운데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옛 끝소리 글자**: 옛 끝소리 흘글자와 옛 끝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옛 흘글자**: 우리 말을 적는 데 쓴 옛 첫소리 흘글자(3), 옛 가운데소리 흘글자(1), 옛 끝소리 흘글자(3)와 그 밖에 다른 나라 말을 적는 데 쓰는 정치음과 치두음을 위한 첫소리 글자 여섯 자 (ㅅ, ㅆ, ㅈ, ㅊ, ㅅ, ㅆ)를 두루 일컫는다.

○ **옛 겹글자**: 옛 첫소리 겹글자, 옛 가운데소리 겹글자, 옛 끝소리 겹글자를 두루 일컫는다.

○ **옛 글자**: 옛 첫소리 글자, 옛 가운데 소리 글자, 그리고 옛 끝소리 글자를 두루 일컫는데. 달리 말하면, 옛 글자는 옛 흘글자와 요즘은 쓰지 않는 옛 겹글자(옛 흘글자가 들어갔든지 들어가지 않았든지)를 모두 포함한다.